

별하늘 아래의 역사: 이바라시 비세이 지구

비세이 지구는 이바라시 중심부에서 차로 20 분 정도 떨어진 산간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바라의 사무라이 시대 일부가 재현되어 있으며, 현지 전통극과 야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주세이 유메가하라

주세이 유메가하라는 일본 중세(일본어로 '주세이') 마을이 재현되어 있는 역사 문화 공원입니다. 건물과 구성은 고문학 자료와 해당 시대에 그려진 그림을 최대한 충실히 재현하였습니다. 마을은 해당 시대에 맞는 재료와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러나 있는 목재 대들보와 기둥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도끼날로 다듬은 헤링본 같은 무늬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얼함이 시대극 촬영 장소가 필요한 영화 제작사 및 취미 사진가, 코스플레이어들이 이 공원을 찾는 이유입니다.

주세이 유메가하라의 마을 광장에는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 한 곳과 4 월부터 11 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 대장장이 일이 시연되는 대장간을 포함해 다양한 가게가 재현된 시장이 있습니다. 공원 곳곳에 있는 농가는 내부가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 공간과 작업 공간을 배치했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상류층 농민 무사를 모델로 삼은 집은 말을 키우는 마구간이 딸려 있고 전투가 일어났을 때 마을을 지키기 위한 무기 등을 갖춘 커다란 저택입니다.

언덕 위에는 산성의 망루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수비군은 사다리 같은 경사가 급한 계단을 올라 산적이나 적군의 접근을 감시하고, 아래에는 식량, 물, 무기를 보관하는 요새가 있어 무사들이 공격에 대비하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빗추 가구라

비세이 기비코젠 가구라 민족 전승관은 주세이 유메가하라 정문 밖에 있으며 빗추 가구라를 공연하는 무대 시설입니다. 빗추 가구라는 이바라 지역에 전해지는 스타일의 가구라(전통 무악)로, 신을 환대하고 기도를 올리기 위한 신성한 의식이자 춤이자 연극입니다. 가구라는 엄숙한 것부터 화려한 것까지 종류가 다양하며 신이나 괴물이 등장하는 신화를 화려한 의상과 가면으로 표현하는 형식이 많습니다. 빗추 스타일은 그중 후자에 속하며 춤 대부분은 거대한 적과의 영웅적인 싸움을 표현합니다. 전승관 앞에 있는 색색깔의 뱀상은 이러한 이야기에 나오는 괴물인 야마타노오로치(8 개의 머리를 가진 전설상의 큰 뱀으로 무대에서는 여러 명의 배우가 연기)의 의상을 모티프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빗추 가구라는 비교적 차분한 스타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빗추 가구라를 좋아하는 이들은 더 극적인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전승관에는 현지의 빗추 가구라에 사용된 의상, 가면, 소도구 박물관이 있으며 극장 공간도 있습니다.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는 무대는 작은 계단식 단으로 다다미가 깔려 있으며 금줄이 늘어서 있고 위쪽에는 길조를 나타내는 모양으로 오린 화려한 종이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좌석은 무대 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관객은 가면을 쓰고 추는 춤, 검을 휘두르는 액션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별에게 보내는 메시지

비세이라는 지명은 ‘아름다운 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세이는 산의 맑은 공기는 물론, 특수한 가로등 설치를 통한 밤하늘 보존 노력으로 광공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공공 천문대 및 JAXA(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의 스페이스 데브리 관측소가 있을 정도로 별을 관측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2021년에는 비세이가 아시아 최초 다크스카이 커뮤니티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별에 관한 관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의 농민들은 비세이 하늘에서 별뿔별이 3 개로 갈라져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파편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찾아내어 떨어진 별을 모시는 호코라라는 간소한 사당을 지었습니다. 1324 년에 이

3 개 사당 중 하나가 옮겨져 호시오 신사라는 큰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 신사는 낮에는 고요하지만, 별에서 유래된 곳답게 매년 별과 관련된 칠석 축제 때는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의 칠석에는 사람들이 단자쿠라는 길쭉한 색색의 종이에 소원을 적어 대나무 가지에 묶습니다. 1989 년 호시오 신사의 최고 신관이 신성한 불로 단자쿠를 태워 소원을 하늘로 보내는 의식을 지냈습니다. 오늘날 8 월 7 일에 열리는 이 의식에는 호시오 신사의 별과 관련된 인연에 대한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참배객들과 단자쿠가 일본 전국에서 모여듭니다.